



신한은행, 필리핀 메트로뱅크와 포괄적 업무협약
신한은행은 서울 중구 본점에서 필리핀 메트로뱅크(Metropolitan Bank & Trust Company)와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CJ푸드빌, 기해년 '희망 KIT 만들기' 봉사활동
CJ푸드빌은 기해년을 맞아 '희망 KIT 만들기' 임직원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마트24, 가족 주제 공모전 정기 개최

편의점 이마트24가 가족을 주제로 한 공모전을 정기적으로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가족 공모전 개최 배경은 이마트24가 지난해 10월 리브랜딩 1주년을 맞아 진행한 고객감사 대국민 공모전 '아주 특별한 당신, 나의 어머니'다.

로 열기로 결정했다. '나의 어머니' 공모전과 마찬가지로 수필, 사진, 영상 총 3개 부문에서 작품을 모집할 예정이다. 공모전 수상작품을 고객과 공유할 수 있는 소통 채널도 마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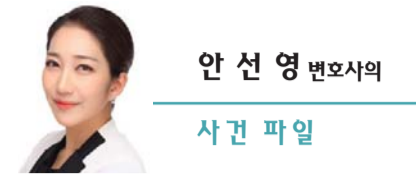
파르나스호텔, 자선행사 기부금 '사랑의 열매'에 전달
삼성동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와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를 소유 및 운영 중인 파르나스호텔(주)는 지난 9일 연말 자선행사를 통해 모금된 기부금을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서울 사랑의 열매)에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인사

◆금융감독원 (직위부여) ◇국·실장 △인재교육원 실장 박신희 △강산남 비서실장 △장진택 법무실 국장 △박학순 연구금융실장 △이영로 금융그룹감독실장 △장경운 핀테크지원실장 △정신동 금융감독연구센터 국장 △조성민 신용감독국장 △김성우 은행리스크업무실장 △이상민 여신금융감독국장 △이희준 상호금융감독실장 △박상춘 저축은행감독국장 △황환준 여신금융감독국장 △이경식 자산운용감독국장 △황성원 금융투자감독국장 △박병호 공시심사실장 △김영철 자본시장조사국장 △최상 최계관리국장 △김정철 회계회계감리실장 △박진혜 보험리스크제도실장 △김상대 분쟁조정2국장 △김철웅 불법금융대응단 국장 △원일연 인천지원장 △안병규 경남지원장 △도종택 제주지원장 △김용실 전북지원장 △이용관 충북지원장 △서창석 강릉지원장 △유창민 뉴욕

사무소장 △이주현 런던사무소장 △김재경 북경사무소장 (전보) ◇국·실장 △김종민 기획조정국장 △서정호 총무국장 △김태성 인적자원개발실장 △이재용 제재심의국장 △온영식 국제협력국장 △이준수 은행감독국장 △이근우 일반은행감독국장 △권창우 특수은행감독국장 △김영주 저축은행감독국장 △임주동 상호금융감독국장 △서규영 자산운용감독국장 △이관재 기업공시국장 △김중우 조사기획국장 △장석일 회계심사국장 △정규성 회계조사국장 △강한구 보험감리국장 △박상욱 생명보험감독국장 △박성기 손해보험감독국장 △김소연 보험영업감독실장 △오홍주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장 △정영석 금융교육국장 △홍길감사실 국장 △이진석 감찰실 국장 △김민진 대구경북지원장 △박중수 광주전남지원장 △김영진 대전충남지원장 (유임) ◇국·실장 △전길수 I.T.핀테크전략국장 겸 선임국장 △조영의 공보실국장 △소현철 정보화전략실장 △권혁철 안전계

득보다 실이 큰 '부동산 명의신탁'



안선영 변호사
사건 파일

Q: A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C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친구 B에게 'B가 위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처럼 C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B 명의로 잠깐 위 아파트를 맡아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리고 B에게 위 아파트의 매수자금 3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몇 년 후 위 아파트 인건이 개발되어 아파트 값이 3배로 뛰자 B가 A 몰래 아파트를 9억 원에 매도해 버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A는 B에게 9억 원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B가 응하지 않아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에서 A는 9억 원이 아닌 당초 A가 C에게 지급한 3억 원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 B의 태도에 화가 단단한 A는 급기야 B를 횡령죄로 고소하였다. B는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을까?

A: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B는 횡령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과거에는 부동산 명의신탁이 많이 행해졌다. 그러나 부동산 명의신탁이 투기의 수단 또는 조세부과, 토지거래허가 등 각종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자 1995년에 이를 금지하는 '부동산 실권자 명의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실법'이라고 한다)'이 제정되었다.

부실법은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을 무효로 하고(제4조 제1항), 위 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도 무효로 하며(제4조 제2항 본문), 이를 체결한 명의신탁자와 명

의수탁자를 형사처벌할 뿐만 아니라(제7조), 명의신탁자에게 과징금까지 부과하고 있다(제5조).

그럼에도 아직까지 부동산 명의신탁이 투기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왕왕 행해지고 있고, 위 사례와 같이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된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한편 부동산 명의신탁에는 크게 3가지 종류가 있는데, ① 부동산 소유자인 A가 자기 명의의 부동산을 B로 변경해 두는 '양자간 명의신탁', ② 부동산을 사려는 A가 부동산 매도인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추후 등기명의만 B로 해두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③ 부동산을 사려는 A가 B로 하여금 부동산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등기명의도 B로 해두는 '계약형 명의신탁'이 있다.

위 사례는 부동산을 사려는 A가 B로 하여금 부동산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등기명의도 B의 명의로 하기로 한 '계약형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계약형 명의신탁의 경우는 매도인이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와 아는 경우로 나누어진다. 먼저 매도인이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는, 부실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해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하게 된다. 즉 명의신탁 된 부동산이 매도인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명의수탁자의 소유가 된다. 그러므로 명의수탁자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 없어 명의수탁자를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도7451 판결 등 참조).

다음으로 매도인이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를 아는 경우는, 부실법 제4조 제2항 본문에 의해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위 등기는 무효이므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보유하게 된다.

따라서 명의수탁자를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부실법이 부동산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관련 약정 및 등기를 무효화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형법상 보호할 만한 위탁신임관계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또한 명의수탁자는 매도인과의 관계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의 상대방으로서 이에 응할 처지에 있을 뿐, 명의수탁자를 매도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매도인이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를 아는 경우에도 명의수탁자를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도7361 판결 등 참조).

참고로 현재 대법원은 위에서 살펴본 계약형 명의신탁뿐만 아니라, 중간생략 등기형 명의신탁의 경우도 명의신탁 된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매도인 및 명의신탁자 모두에 대한 횡령죄의 성립을 부정하고 있다(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처럼 부동산을 명의신탁할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몰래 부동산을 처분해 버릴 위험은 물론이고, 형사처벌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을 위험까지 있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부동산 명의신탁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무법인 바른

현대엔지니어링 신입사원, 쪽방촌서 연탄 배달

등유 2000L, 연탄 3000장 기증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9일 올해 신입사원 51명이 서울 영등포 쪽방촌을 찾아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현대엔지니어링은 쪽방촌에 등유 2000L와 연탄 3000장을 기증했다.

신입사원들은 연탄을 배달하고 보일러를 때는데 사용될 등유도 200L씩 10가구에 각각 배달했다.

이에 앞서 오전에는 계동 본사 대강의실에서 현대자동차그룹 및 현대엔지니어링의 사회공헌체계와 '디딤돌하우스 프로젝트', '새희망학교' 등 현대엔지니어링이 실시 중인 사회공헌활동들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케이스스터디(Case study)를 통해 지난해 8월부터 현대자동차그룹 해피무브



현대엔지니어링 신입사원들이 지난 9일 서울 영등포 쪽방촌에서 연탄 배달 봉사를 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

글로벌 청년봉사단과 함께 실시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마을 개발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도 제안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2019년 한

해도 현대엔지니어링 전 임직원이 적극적으로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부음

▲ 허순분씨 별세, 추후식(대구신문 기자)씨 모친상 = 10일 오전 6시, 대구의료원 국화원 302호, 발인 12일 오전 8시 30분, 010-3507-8794
▲ 김종환씨 별세, 김길수(부산일보 부장)씨 부친상 = 10일, 함양장례식장 101호, 발인 12일 오전 8시, 055-964-2000
▲ 임영숙 씨 별세, 양정석(에이블스토어 본부장) 씨 모친상, 노경아(이투데이 편집부 교열팀장) 씨 시모상 = 8일, 한양대병원 장례식장 2호, 발인 10일 오전 9시 30분, 02-2290-9452
▲ 김덕만 씨 별세, 성근(서울대 자연대 교수)·성준(J&C 대표) 씨 부친상, 송인복·계인숙(경남정보대 교수) 씨 시부상 = 9일 오전 5시 10분,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11일 오전 11시 30분, 02-2072-2014